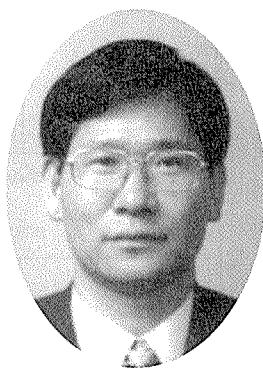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혁신적 경영자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노순규

1.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20세기의 산업화시대를 거쳐 21세기 정보시대로 접어들었다. 세계 각국의 시장은 무한경쟁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보기 드문 초고도 성장의 풍요로움속에서 번영의 삶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중산층의 붕괴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간다. 이제 어느 조직 단위에서나 책임지고 있는 리더라면 그와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제한된 범위안에서 변화를 창출하려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와같은 개선과 변화에 대한 추구는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의 하나이며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이라고 한다.

조지길더(George Gilder)의 기업가에 대한 정의에서 "기업가는 생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들은 신의 법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 그는 기업가정신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에디슨을 든다. 에디슨은 1,093개의 발명특허를 가진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그의 발명은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가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개선을 이루려는 것이 기업가의 특징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기업가적 열의는 어떤 조직의 리더에게나 필요한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기업가는 미래에 대한 시각이 낙관적이며 뚜렷한 목표가 존재해야 한다.

〈표 1〉 기업가의 성격

구 분		미래에 대한 시각	
		낙관적 미래	비관적 미래
실현목표	있다	참된 기업가	기업가적 자질의 부족
	없다	잠재적 기업가	철저한 관료기능인

기업가정신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사고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가진 기업가의 경영활동으로 표현된다. 또 기업가정신은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추구, 특이함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강할수록 가치가 잘 창조되며 비영리조직보다는 영리조직에서, 전문경영자보다는 소유경영자에서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지식, 정열, 독특한 경험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적 리더와 보통 사람의 차이를 들다면 전자는 자신만의 지식, 정열, 경험 등을 자산으로 하여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실현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가란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가장 알맞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이다.

2. 성공하는 경영자의 조건

기업이 하나의 조직이라면 경영자는 그 조직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는 여러 가지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자본의 형성과 임금, 이자, 이윤 등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경영자의 정신 및 행동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속에서 위험(risk)을 부담하는 행동을 한다.

둘째, 재정자금의 조달자이다.

셋째,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넷째, 산업의 지도자이다.

다섯째, 생산요소의 사용자이다.

여섯째, 자원조달의 계약자이다.

〈표 2〉 성공하는 경영자의 조건

- 1) 다른 사람의 친절을 고마워하고 아픔을 이해한다.
- 2)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 3) 종업원에게 보답하는 경영을 한다.
- 4) 종업원에 대해 솔선수범한다.
- 5) 금전, 물품, 정신적인 것을 남들과 나눌 수 있다.
- 6) 경영에 있어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별할 수 있고 실행한다.
- 7) 우선순위에 맞추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 8) 독특한 인생관 및 경영관으로 종업원을 끌어들이는다.
- 9) 기업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그에 맞게끔 종업원들을 발전시킨다.

흔히 경영자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두가지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현재의 이윤마진이 감소되지 않은 가운데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판매가격 인하없는 이윤마진의 증대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컨설팅 회사는 조사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업의 성과는 경영자가 누구냐 혹은 그가 어떤 지혜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35%이상의 영향을 미칠만큼 크다고 한다. 좋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며, 참다운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혁신적 경영자의 역할

기업의 핵심은 바로 '경영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스스로 무한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 판매, 재무, 노무 등 모든 영역에서의 경영의욕과 능력이 경영의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영자는 혁신적인 경영전략가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전략은 먼저 그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그 조직체계에서 바람직한 일의 성과를 얻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기업의 존립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으로 일의 성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드러커(Drucker)는 기업혁신의 원천을 기업가정신과 새로운 인식에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컵에 반이나 차있다"는 말과 "컵이 반이나 비어 있다"는 말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행동 및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반쯤 찬 컵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반이나 차 있다"에서 "반이나 비어 있다"로 변화된다면 바로 그것에서 훌륭한 혁신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끊임없는 혁신은 조직 및 경영의 개선은 물론 공장 시설의 확충과 가동률의 향상, 그리고 보다 나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매출액은 물론 높은 이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은 혁신이라는 기업가정신과 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밑바탕으로 하여 오늘은 물론 내일의 기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혁신적 경영자는 성취지향적 경향이 강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복적인 일상업무를 싫어한다. 그는 창조적인 기업가의 특성인 뜨거운 정열과 불굴의 의지, 상상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절제있는 온건한 성품을 겸비하고 있어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냄으로써 지극히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일지라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내부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행동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준다. 정보시대에서의 경영자는 예리한 눈과 넓고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한때의 눈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미래에 대한 세상을 향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눈을 말한다. 과거 우리의 경쟁국이던 대만이 지금은 경제적 '강자'가 되고 스위스가 풍요로운 나라가 된 이유에는 국민 개개

인이 경영자의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의 일터 즉, 직장에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달리 우수한 두뇌와 남다른 인내력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정신적 자

원을 바탕으로 마음과 행동을 과감히 변화시켜 선진국의 대열위에 올려놓도록 하자. 그럴 경우 우리의 기업과 국가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될 것이고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주체가 될 것이다.

